

세계가 밀려온다(I)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농업 전망

수입증가 · 국제가격 상승 · 경쟁심화 등 부정영향 클 듯
수출촉진 및 투자확대 방안 등 찾아 전화위복 계기돼야

세계 10대 무역대국인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의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에 따른 대중 수출 및 투자 가능성 확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 가격의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



임 정 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농산물 자회 내줄 가능성 커
우선 중국산 농산물 수입

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국내시장에서 여타 회원국들처럼 중국산 농산물에 최혜국(MFN) 대우를 인정하여 공정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우리 나라는 이미 한-중 수교 이후인 '92년부터 중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불필요하며 중국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추

millennium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땅콩 참깨 등 유지작물, 한약재를 비롯한 특용작물 등 조정·긴급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기후 및 재배 품목이 유사한 중국의 WTO 가입은 향후 수입증가로 인해 직접적으로 국내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WTO 가입의 댓가로 중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관세인하 및 시장접근 물량의 확대, 국영무역의 축소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밀, 옥수수 등 곡물 순수입국인 중국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이들 품목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곡물수입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들로부터 무차별적 관세인하의 혜택을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 받게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미국 및 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나라 수출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수입국 입장 같아 우리에게 힘 될 듯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 농업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차기 농업협상과 같은 국제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력가능성의 증대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매년 수입물량기준으로 1천만톤 이상, 수입금액기준으로 30억달러 내외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농산물 순수입국이다. 따라서 향후 주요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과 케언즈그룹(Cairns group) 등 농산물수출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에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와 협력관계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볼 때 중국의 경우도 완전한 쌀시

장의 개방이 어려운 입장이므로 협상 전략상 상호 협력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또한 시장개방과 무역장벽의 완화는 우리 나라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여건을 개선시킬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가공농산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우리 나라 가공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증가 및 투자기회 확대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은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합리적 관세제도 운영체계 확립 효과적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이용방안 수립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가능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단력관세제도의 재정비와 효

세계가 밀려온다(I)

과적 활용방안 마련이다. 계절, 할당, 차액, 긴급, 조정, 슬라이드 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는 국제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제도로서 향후 급격한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피해 최소화와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관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빈도가 적으며 구체적인 시행령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탄력관세제도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주로 조정관세, 긴급관세 등만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탄력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기간, 대상품목의 선정 및 관세율 산정 등에 있어 제도의 명료성과 객관성 부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탄력관세제도의 효율적 적용방안 및 대상품목의 선정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향후 상대국과의 통상마

찰을 피하기 위한 보다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운용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의 효과적 이용방안의 수립이다. 지난 UR 협상에서는 수입가격이 기준이하로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기준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관세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입국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는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pecial Safeguard)가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관세화의 보완 장치로서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일반관세로 전환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긴급피해구제조치가 허용되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기존 관세수준의 1/3까지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대국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동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철저한 검역 및 제도정비 요망 원산지표시제 강화 및 밀수근절 대책 마련

셋째, 동식물 검역 및 식품 검사제도의 강화이다. 농산물 수입은 여타 공산품 수입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철저한 검역 및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중국산 수출 농산물은 중국 생산자 및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우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검역 및 위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산 농산물의 검역을 통한 철저한 통제는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하에 국제적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상대국으로부터의 저항도 적고, 국민건강과 국내 산업보호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의 보완과 밀수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국산 농림수산물은 유통상인들의 무

millennium

책임한 이윤동기로 인해 국내에 들어오면서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가격이 워낙 저렴하여 “파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리 상인들의 무분별한 밀수행위가 매년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저가에서 저질 상태로 수입되는 중국산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생산농가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밀수행위를 근절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취약한 농산물 관세체제 정비 수출·투자확대 방안 모색해야

다섯째, 농산물의 관세체제의 정비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체제는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농산물의 경우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산업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관세율 체계는 미국 94단계, 일본 50단계, EU 34단계 등으로 우리나라의 12단계에 비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품목간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통해 산업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단순하고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가 낮아지는 역관세 형태를 취하고 있어 관세의 산업보호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피해구제조사를 신청한 냉동마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관세율의 단계확대에 대한 검토와 세번(HS) 분류체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특히 역관세 현상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관세를 양허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증대 및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는 우리의 수출 확대 및 해외농업의 투자대상으로서 여건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식품소비 패턴 변화로 가공농산물의 수출증대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내 외국 투자장벽의 완화가 예상되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중인 대중국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으로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유망 품목 발굴에 노력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대중국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약정보**